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March, April 2008 Edition

Celebration in Na-ju incur excommunication Fr. Chang is no longer a priest of Kwang-ju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e decree of the Archdiocese of Kwang-ju regarding the hill of Our Lady in Naju

Thus, I declare that the clergy, religious, or laity who preside over or attend the celebration of the sacraments or sacramentals, against my prohibition, at any alleged 'oratory' or the 'hill of Our Lady in Naju' incur a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Cf. Can. 1336,1364). In doing so they are disobeying the pastoral directives and judgement of the Ordinary and they are thereby breaching Canon Law (Cf. Can. 1369,1371,1373) and destroying ecclesiastical unity and communion. This

decree binds all the clergy, religious, and laity in the Archdiocese of Kwangju as well as all the faithful in the Catholic Church.

Second, I confirm that Fr. Aloysius Chang Hong-bin,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Kwangju, no longer has the intention to be in unity and harmony with the archdiocesan presbyterium, because he claims that 'Julia Youn in Naju and all related phenomena' are a 'private revelation' and 'miracles' and that following them is a matter of choice that the faithful make in accord with their 'conscience'. Also on several occasions he has not observed the solemn promise of obedience to his Ordinary that he made at ordination. He has not changed and defended his opinion regarding 'Julia Youn

2008 Seminar Schedule

일자	행사	주최	문의
3/28 - 29	LSS Young Leaders Workshop IX	KSC	Julia Lee 253-223-8775
3/30	KSC-Y initiation meeting	KSC	Julia Lee 253-223-8775
4/4 - 6	기도회 봉사자 세미나	뱅크버 기도회	사 스테파노 604-939-0521
5/4 - 13	로마 성지 순례	KSC	사무국장 253-223-8775
5/4 - 7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5/23 - 25	전국 봉사자 세미나	KSC	사무국장 253-223-8775
5/23 - 25	성장 세미나	콜로라도 봉사회	지 베드로 303-341-5594
6/8 - 11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아틀란타	안 희숙 704-975-5969
6/13 - 15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포틀랜드 본당	오 요셉 425-773-0947
7/19 - 20	동북부 성령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8/7 - 10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달라스 본당	민 라파엘 214-952-8956
11/14 - 16	National Leaders' Conference	NSC	Julia Lee 253-223-8775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in Naju and all related phenomena' in two meetings with the Archdiocesan College of Consultors (on June 1, 2007 and on January 15, 2008). Thus, he has shown himself as 'one of those who believe in Julia Youn in Naju and all related phenomena' rather than a diocesan priest who observes the obligation of obedience to his Ordinary (Cf. Can. 273,278).

Therefore, Aloysius Chang Hong-bin no longer possesses the title and rights of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Kwangju, and all 'common faculties attaching to diocesan priests in Korea' previously bestowed by sacred ordination are revoked (Cf. Can. 194,1333,1336,1371).

광주 대교구장 최창무 주교는 나주 성모 동산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파문을 경고하고, 장홍빈 신부의 사제권을 박탈했다.

다음은 최창무 주교의 교령중 일부 발췌문이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며, 건전한 신앙행위나 경신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 이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교회법 제1369조, 1371조, 1373조 참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둘째, 본인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고, 사제수품 때 서약한 교구장에 대한 순명 의무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여기는 본 교구 소속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더 이상 광주 대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참사회(2007년 6월 1일, 2008년 1월 15일)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입장을 변명하는데 만 급급하며 교구장에게 서약한 순명 의무(교회법 제273조, 278조 참조)를 지키는 교구사제이기보다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수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일체를 취소합니다(교회법 제194조, 1333조, 1336조, 1371조 참조).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4순절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4순절을 Lent라고 합니다.

Lent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썩어 싹을 틔우면 수십, 수백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Lent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고 부활로 새싹이 나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새싹이 자라서 50일이 지나면 새 씨앗이 여물어 추수 할 때가 옵니다.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추수절을 5순절 (5 x 10 = 50) Pentecost 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한국교회는 '성령강림주일'이라 부르고 있지만, 세계 보편교회는 Pentecost Sunday라 부르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종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새 씨앗을 많이 추수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말씀의 종자씨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것은 오순절에 우리를 추수 하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새생명의 추수는 오순절의 참다운 섭리입니다.

하느님 삼위일체의 계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들어났으며 하느님의 인류구원계획은 오순절의 전개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말은 마지막 오순절을 뜻하는 것이라 봅니다. 공심판은 하느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쪽정이 세상을 영원한 불,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알곡을 추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추심	\$100.00	MN
문 오틸리아 수녀님	\$200.00	AK
최 엘리사벳	\$100.00	OH
김 영남	\$500.00	MN
용 Oin	\$100.00	MN
김 루시아	\$50.00	MN
장 학J	\$200.00	MA
씨에틀 청년회	\$150.00	WA
권 중세	\$100.00	AK
김 명S	\$300.00	AK
노 현재	\$100.00	HI
선애 Mercuio	\$20.00	NC
홍 종원	\$100.00	MN
최 미카엘라	전기 담요, 장관	WA

성령으로 벱차 오르는 가슴....

알래스카 은사적 성모 신심 세미나를 마치고

최 명희 엘리사벳 앵커리지 본당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힐 새 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성모신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미나 장소는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다. 함께한 공동체 자매님들의 들뜬 열의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이곳에서 흔히 갖을 수 없는 기회이고, 성모님에 대한 공부와 신앙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작은 기대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는 성모님에 대한 지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성모신심 세미나'였다.

소박했다. 봉사자님들의 말씀도 소박했고 함께 참석한 자매님들의 태도도 소박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흔히 보여지는 열광의 분위기와 끈끈한 땀내와 터질듯한 주님의 사랑이 요란하게 보여지지 않았다. 잔잔하고 기교없이, 소금이 약간 덜 들어간 맛 같았다.

세미나 첫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마지막 셋째 날이 되었다. 그 셋째날에만 몰입되어 있었다. C 봉사자님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 보였고, K봉사자님도 너무 부러웠다. L봉사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속에서 북받치는 울음이 차 올랐다. 뭔지 모르겠다. 그저 가슴이 터질듯이 아픈 건지, 터질듯이 기쁜건지, 터질듯이 답답한 건지 모르겠는 가슴이 뭔가로 가득찼다. 봉사자님께 안아 달라고 하고 싶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자매님들이 봉사자님들과 개인적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끝날 즈음에 난 L봉사자님을 안을 수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가슴을 L봉사자님께 기대고 하루 종일 그대로 있고 싶었다.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 하나 풀어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시간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집에서 잡다한 집안일을 정리하는 중에도, 몸이 가려운데도 내 손이 닿지 않아 긁을 수 없는 상태와 같은 안절부절이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봉사자님들이 묵고 계신 자매님택을 찾아 갔다.

그리고 '성령님'을 느꼈다. 부제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가슴이 벱차 올랐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는 곧 바로 마음이 가라 앉았다가 '성령'이란 단어만 내 귀에 들어와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흐드득 떨렸다. 부제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신령한 기도를 하고, 성령찬송을 하였다. 어떤 자매님을 위해 봉사자님들과 함께 신령한 기도를 할 때, 내 혀는 내 혀가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격인 내가 그런 기도를 울부짓듯이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내 이상한 모습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봉사자님들을 공향에서

배웅하는 순간까지 그분들 입에서 '성령'이란 단어만 나와도 내 가슴은 떨었다.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야 난 성령을 느낀다. 내 속에서 내 힘을 빼 버리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주님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자격이 없다" (루가 9:62).

주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어쭙잖은 내 나름의 해석으로 오만을 부렸던 내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

전국 봉사자 세미나

5월 23-25일

전국 기도회 봉사자 세미나가 오는 5월 23-25일 개최된다. KSC에서는 각 지역의 기도회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2008 과달루페 성지 순례

과달루페 성지를 20여명의 순례단이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 까지 다녀왔다. 제 7차 순례인 이번 성지 순례에는 앵커리지 본당의 문 오틸리아 수녀님과 박 아셀라 수녀님이 참여했다



로마 성지 순례, 오순절(성령강림절) 전야미사를 교황님과 함께 봉헌합니다.

순례 지역: Rome, Assisi, Pio 신부님 묘지, Florence, Siena
 일정: May 4th (Sun) - 13th (Tue) 9박 10
 집합 시간: May 4th (Sun) 4:00pm Newark (EWR) 국제 공항 집합
 도착 시간: May 13th (Tue) 2:00 pm Newark (EWR) 국제공항 도착
 현지 비용: \$1,250.00 (숙식과 버스), 예약금(전액) \$1,250.00, 항공 비용 별도
 항공편 문의: World Travel, Inc. Ms. Lydia Lee
 Tel. 1-800-555-9352, 212-971-0022 Fax. 212-971-0060
 신청서 접수: Julia Lee (Check Payable to KSC) Tel. 253-223-8775
 130 67th Ave E, Fife, WA 98424 Fax. 253-663-4407
 e-mail: eunkyungjulia@hotmail.com
 마감: 2008년 4월 15일 (선착순 30명)

KSC: 2008 Rome + Italy 순례 참가 신청서

성명 (한글):	세레명(한글):	
성명 (여권영문):	세레명(영문):	
전화: (R)	(C)	Sex: M() F()
주소:		
E-mail address:	룸 메이트 성명:	
여권국적(Nationality):	출발 공항(Departure Airport):	
여권번호(Passport No):	항공사, 뉴욕 공항 도착시간(Arrival Time):	
소속 공동체:	회비 납부:(전액) \$1,250.00	
나는 KSC 로마 순례에 참석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수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 신청 날짜: 2008 년 월 일 서명 Signature: _____		

전국 봉사자 세미나 (5월 23일 - 25일) 참가 신청서

성명	세레명	
전화 (R)	(C)	
주소:		
E-mail address:		
소속 공동체:	Sex: M() F()	
씨애틀 공항 도착 시간:		